

# 치악산국립공원의 역사와 문화자원

2011. 4. 30.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CHIAKSAN NATIONAL PARK OFFICE

# 목 차

I	치악산국립공원	1
1.	개관	
2.	치악산의 유래	
II	치악산의 역사와 문화자원	4
1.	경관자원(치악 8경)	
2.	치악산 지구별 역사·문화자원	
1)	구룡지구	
	학곡리황장금표      구룡사      사다리병창      비로봉미륵불탑	
2)	금대지구	
	영원사      영원산성      금대산성지      금두산성지	
3)	성남지구	
	성황림      상원사	
4)	황골지구	
	홍양리마애불좌상      입석사      입석대      보문사      동악단	
5)	부곡지구	
	태종대      변암      노구소	
III	치악산 지역의 지명 및 유래	33
1.	소초면 학곡리	
2.	소초면 홍양리	
3.	원주시 행구동	
4.	판부면 금대리	
5.	신림면 성남리	
6.	강림면 강림리	
7.	강림면 부곡리	
부	록(치악산 문화재 현황)	51

# I. 치악산국립공원

## 1. 개관

치악산(雉岳山)은 영서지방의 명산이며 원주의 진산(鎭山)이다. 예부터 '호국명산'으로도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에는 국가제사인 소사(小祀)가 행해지던 곳으로 나라의 신앙처가 되었다.

치악산은 태백산맥의 허리에서 남쪽으로 내리닫는 차령산맥 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유달리 지형이 험하고 골짜기가 많아 곳곳에 산성과 사찰, 유적지들이 널리 산재해 있으며 지명과 어울리는 많은 설화들을 간직하고 있다.

치악산은 주봉인 해발 1,28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서쪽은 원주시, 동쪽은 횡성군과 영월군에 접하고 있다. 남북으로 뻗어 내린 치악산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수레너미재를 지나 매화산(1,084m), 천지봉(1,086m), 서쪽으로는 토끼봉(887m), 투구봉(1,002m), 삼봉(1,072m), 그리고 남쪽으로는 향로봉(1,042m), 남대봉(1,181m), 시명봉(1,187m)까지 천미터급 고봉들이 연이어 솟구쳐 있어 '치악산맥'이라 불릴 정도이다.

치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중 1984년 12월 31일 1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전체 면적은 175.668km<sup>2</sup>이다. 아주 맑은 날에는 북한산 백운대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이 치악산이며 서울에서는 직선거리가 약 100km 가량 떨어져 있어 수도권 일일관광이 가능하다. 또한 원주시내에 위치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교통망과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치악산국립공원은 구룡지구, 부곡지구, 황골지구, 금대지구, 성남지구 등 모두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뉜다. 또한 지형상 서쪽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적악산(赤岳山)으로도 불렸던 치악산은 이름 그대로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우며, 구룡계곡에서 비로봉으로 오르는 탐방로가 가장 일반적인 코스이다. 철 따라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는 금강소나무의 울창한 숲과 깨끗한 물,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빼어난 곳이 바로 치악산이다.

## 2. 치악산의 유래

경상도 의성의 한 나그네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 치악산 기슭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숲 속에서 꿩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잔솔밭 아래 커다란 비단 구렁이가 꿩을 잡아먹으려고 꼬리를 들고 있었다. 나그네는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려는 꿩을 불쌍히 여겨 활을 당겨 구렁이를 쏘아 죽였고, 그 길을 재촉하여 가는데 해가 저물었다.

깊은 산중에서 해가 저물어 부득이 인가를 찾게 되었으며, 어두워서 찾아낸 집은 어느 이름 모를 절간이었다. 문을 들어서면서 주인을 찾으니 이상하게도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나그네는 하룻밤 자고 가기를 간청했으며, 여인은 쾌히 승낙하면서 방으로 안내했다. 여인은 저녁밥을 차려다 주고 대접을 융숭히 해줬다. 저녁밥을 든 나그네는 피곤이 몰려와 곧장 깊은 잠에 빠졌는데 잠 속에서 몸이 부자유스러움을 느껴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나그네는 놀라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죄 없는 선비를 해치려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소리치자 구렁이는 두 갈래 혀바닥을 날름거리며, “손님은 오늘 오시다가 도중에서 살생을 했소. 그 구렁이는 내 남편이오. 그를 죽였으니 임자도 마땅히 죽음을 당하여야 하오!” 라고 대답했다. 나그네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살려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구렁이는 “절 뒤 종루에 종이 있는데 그것을 세 번만 올리면 살려줄 수가 있소!” 하고 조건을 내놓았다. 나그네는 자신의 활 솜씨를 믿고 그까짓 종쯤은 문제없이 맞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자 나그네는 절 뒤뜰에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구렁이가 이야기한대로 종루가 있고 그 끝에는 종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그 종루는 어찌나 높은지 다른 종루와는 달랐다. 나그네는 화살을 뽑아 시위에 걸고 힘껏 당겼다. 그러나 첫 화살은 종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둘째 화살도 첫 화살처럼 종을 미칠 듯 미칠 듯하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그네는 마지막 화살을 뽑아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종을 향해 쏘았다. 마지막 화살도 종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고 말았다. 나그네는 이제는 할 수 없이 구렁이에게 죽임을 당해야겠구나 하고 탄식을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려던 때였다. 그런데 이게 웬 변고인가? “땡! 땡! 땡!” 하

고 종루에 종이 세 번 울리는 것이었다. 종이 울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령이의 변신인 소복한 여인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 나그네는 위기를 면하게 됐다. 나그네는 종소리가 난 것이 하도 이상해서 종루 밑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꿩 세 마리가 머리가 터져 죽어있었다. 전날 살려준 꿩의 식솔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나그네의 위험을 구하고자 머리로 종을 치고 죽은 것이었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산을 꿩이 보은(報恩)을 한 산이라 하여 꿩 치(雉)자를 써서 치악산(雉岳山)이라고 바꾸었다.

### 조선왕조실록

오악(五嶽) : 중국에서 태산(泰山)·형산(衡山)·숭산(嵩山)·화산(華山)·항산(恒山)을 오악이라 하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백악산(白嶽山)을 중앙으로, 관악산(冠岳山)을 남악으로, 치악산(雉岳山)을 동악으로, 감악산(紺嶽山)을 북악으로, 송악산(松嶽山)을 서악으로 하여 사시로 제사하였음

### ※ 치악산은 東嶽(岳)名山인가?

『동국여지승람』에 치악산을 『在州東二十五里鎮山』이라 기록하고 있고, 同書 詞廟條 雉岳山詞項에 『在山頂俗稱普門堂 春秋降香祝致祭』라는 구절이 있고 것으로 보아 치악산은 원주의 진산(鎭山)이며 국가차원에서 제사지내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치악산이 동악명산으로 나와 있는 기록은 없다. 과연 치악산은 동악명산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 체계는 그 중요도에 따라 크게 大祀, 中祀, 小祀로 등급을 나누고 그 외에 제사의 형식과 대상, 지역에 따라 기고(祈告), 속제(俗祭), 주현(州縣) 등으로 구분하였다. 대사는 사직과 종묘, 영녕전에 대한 제사이며, 중사는 風雲雷雨, 4嶽<sup>1)</sup>, 3海, 7瀆 등 9종의 제사로 이루어졌으며, 소사는 10名山<sup>2)</sup>과 8大川 등 15종류의 제사가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성종 5년(1474), 『國朝五禮儀』가 편찬되면서 완비되었으며 이러한 사전 체계는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운영된다.

여기서 ‘嶽(岳)’과 ‘名山’이 변별되어 있는 점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중사와 소사로 제사의 격이 구별되

1) 智異山(남), 三角山(중), 松嶽山(서), 鼻白山(북). 三角山과 白嶽은 같이 제사하여 5악의 변형으로 운용되었다.

2) 雉嶽山(동), 계룡산·全州城隍·금성산(남), 木覓山(중), 牛耳山(서), 감악산·義館嶺·永興城隍(북)

고 있다. 그리하여 제사를 지낼 때에도 차등이 있었다. 따라서 치악산은 치제의 대상지로서 '명산'에 속한 것이지 '악'에 속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종 기록에 치악산은 '東'과 관련하여 등장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名山'과 '동악단' 등의 기록이 산견되기도 한다. 또한 동악단(東岳壇)이라는 제사처에서 매년 제향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미루어 보건데, 치악산은 치제의 대상으로서 "東嶽(岳)"이 아니라 "東嶽(岳)"의 "名山"이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II. 치악산의 역사와 문화자원

### 1. 경관자원

구분	경관자원
산봉	비로봉(1,288m), 남대봉(1,181m), 향로봉(1,042m), 매화산(1,084m), 천지봉(1,086m), 시명봉(1,187m), 토끼봉(887m), 투구봉(1,002m), 삼봉(1,072m)
고개	길재, 배너미재, 쥐너미고개, 수레너미재, 곧은재, 원통재, 싸리재
기암	거북바위, 사다리병창, 입석대, 신선대, 변암, 횡지암, 아들바위, 용마바위, 창대바위, 만화대, 세종대, 선바위, 인삼벽(고란벽), 치마바위
계곡/폭포	구룡소, 선녀탕, 세렘폭포, 노구소, 상원사 용천, 영원사, 관음사, 부곡, 황골, 상원골, 은선, 관, 도토리, 질아치, 쿵쿵
기타	금대굴, 회곡굴

※ 치악 8경<sup>3)</sup>

구분	내용	비고
제1경	비로봉 미륵불탑	
제2경	보은의 전설이 깃든 상원사	
제3경	구룡사와 구룡계곡	
제4경	식물의 보고 성황림	
제5경	사다리병창	
제6경	호국의 성지 영원산성	
제7경	태종대와 부곡계곡	
제8경	기암괴석 입석대	

3) 치악산사무소에서는 1995년 치악산의 빼어난 경관 중 대표적인 경관을 치악8경으로 선정한 이후 조사,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 및 관리하여 왔다.

## 2. 치악산 지구별 역사·문화자원

### 1) 구룡지구

#### 학곡리 황장금표(강원도기념물 제30호)

학곡리 황장금표는 치악산 구룡사로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다. 황장목(黃腸木)은 나무의 수심 부분이 누르고 몸이 단단한 질이 좋은 소나무로서 왕실에 올리는 특산물 중의 하나로, 왕실의 관재(棺材)나 나라의 건축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황장목을 금양(禁養)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도벌을 금지한다고 하는 표식으로 황장금표를 세웠다.

현재 치악산에는 금표(禁標)가 2개가 있는데 제1금표(황장금표)는 구룡사 입구 왼쪽에 위치해 있으며, 제2금표(황장외금표)는 자동차야영장에서 새재골로 들어가는 왼쪽 언덕 아래에 있으며 1993년에 발견되었다.

제1금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장금표(黃腸禁標)'라고 한 줄에 새겨져 있는데 '금(禁)'자와 '표(標)' 사이에 '동(東)'자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제2금표는 밑부분이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나 상하 두 줄로 '황장(黃腸)'·'외금표(外禁標)'라 새겨져 있다.

금표제도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조선후기에는 봉산제도로도 불렸다. 치악산에는 질 좋은 소나무가 많을 뿐 아니라 강원감영(江原監營)이 가까워 관리에 유리하며, 한강 상류에 위치하여 뗏목으로 한양까지의 운반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국 60개소의 황장목 봉산(封山) 중에서도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치악산에 2개의 금표가 있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다.



## 구룡사(龜龍寺)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로서,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45호인 보광루를 보유한 치악산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구룡사는 치악산 능선 밑의 급경사지에 동향(東向)의 배치를 하고 있으며, 조선중기 이후 산지에 건립된 사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라 문무왕 6년(666)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서 대웅전 자리에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구룡사(九龍寺)라 하였으나, 조선중기에 거북바위 설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명칭인 구룡사(龜龍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한편 『치악산구룡사사적(雉岳山龜龍寺事蹟)』에 의하면 신라 말의 고승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현재 구룡사의 역사는 유일한 자료인 사중(寺中) 기록에 의지할 수 있는데 숙종 32년(1706)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구룡사의 모든 건물은 숙종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참고할 자료는 없으며 근자에 이루어진 중수(重修)에 대해서는 태허당(太虛堂) 종영사(宗泳師)의 공적을 들 수 있다. 종영사는 황폐되었던 사찰 전모를 새로 지어 1966년에 보광루(普光樓)를 해체 복원하였고 1968년에는 심검당(尋劍堂) 및 요사(寮舍)를 보수하였다. 1971년에는 삼성각(三聖閣)을 보수하였으며, 1986년에 주지 정휴(正休)에 의해 사찰이 말끔히 단장되었다.

### ■ 일주문 ■

구룡사 일주문에는 “원통문(圓通門)”이란 현판이 걸려있고 주련(柱聯)은 “歷千劫而不古(역천겁이불고) 恒萬歲以長今(항만세이장금)”이라 적혀있다. “圓通”이란 말은 “○通”이라고도 쓰며, “둥글게 통한다” 즉, 모든 이치와 법을 깨달아 불교에서의 최고 경지인 “성불(成佛)”을 의미한다. 또한 주련(柱聯)의 “歷千劫而不古(역천겁이불고) 恒萬歲以長今(항만세이장금)”은 “천겁이 지나더라도 낡음이 없고 만년동안 항상 오늘과 같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래의 구룡사 일주문은 너무 넓고 기둥이 부패하여 2002년에 재건되었으며, 재건된 위치는 원래의 위치에서 좌측으로 약간 변경되었다.

## ■ 부도전(浮屠田) ■

구룡사 경내에 있는 승려들의 묘탑을 모아 놓은 곳으로 원통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 넓은 대지가 있고, 이곳에 모두 9기의 석조부도가 안치되어 있다. 6기의 부도와 3기의 부도비가 있는데, 부도는 석종형 부도 4기, 팔각원당형 부도 2기로 모두 조선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불교미술의 퇴조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주인공이 명시된 것은 6기가 있고 건립연대가 명시된 것은 2기 뿐이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 ■檜堂 浮屠, 全高 1.68m

제2기 : 無銘 浮屠, 全高 1.54m

제3기 : 洗染堂楚雲大師塔, 石碑形으로 全高 82cm, 乾隆十年乙丑四月日立

제4기 : 行願堂道先塔, 全高 1.24m, 좌우측 아래에 글씨가 있으나 판독불능

제5기 : 冲虛堂■■■大師之塔, 全高 1.33m, 뒷면의 건립연대는 판독불능

제6기 : 無銘 浮屠, 全高 1.37m

제7기 : 無銘 浮屠, 全高 1.5m

제8기 : 霜波堂寶寬大師靈珠塔, 石碑形으로 全高 1.07m, 崇禎後三癸巳閏三月日立

제9기 : 海月■■明■■塔, 全高 1.4m, 탑의 뒷면에 글씨가 있으나 판독불능

이 가운데 乾隆 10年 乙丑은 1745년(영조 21)에 해당되며, 崇禎後三癸巳는 1773년(영조 49)이다. 이 2기의 석조부도에 절대연대가 있어 주목된다. 구룡사 부도전이 있는 곳은 비교적 넓은 곳에 말끔한 조경을 하여 환경도 좋고 보존이 양호하다.

## ■ 구룡사 보광루(강원도유형문화재 제145호) ■

구룡사의 출입은 사천왕문(四天王門)을 통과하여 보광루 아랫부분의 트여 있는 가운데 칸을 통로로 삼아 대웅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누하진입방식(樓下進入方式)인데, 이러한 방식은 경사진 지형에 조성된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보광루는 구룡사의 가람배치에서 불이문(不二門)의 성격을 가진 건물로 공간의 위계(位階)를 구분함과 동시에 누각 아래를 통한 진입으로 전이공간(轉移空間) 역할을 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집으로 홑처마 맞배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으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배흘림이 있는 튼실한 원형기둥을 세워 아래층을 구성하고 있다.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가운데 1칸을 제외한 나머지 옆칸은 판벽으로 막아 창고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창고 안쪽으로도 기둥을 세워 놓았으며, 각 칸마다 두 줄씩 가로, 세로로 보를 놓았다. 누각층은 대웅전 앞의 마당공간을 향해 벽체가 없이 개방시켰으나 나머지 3면을 판벽으로 처리하였고, 정면의 각 칸 사이에는 2짝 판문으로 달았다. 기둥은 1층보다 빈약하고 배흘림이 없는 원형기둥을 사용하였고, 이익공형식으로 연꽃과 연꽃 봉우리를 장식하였으며, 기둥머리에는 봉황머리를 장식하였다. 누마루는 우물마루이며, 천장은 우물반자인데, 한때 마루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석이 깔려 있었다.

## ■ 대웅전(大雄殿) ■

구룡사 대웅전은 1971년 12월 16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9월 30일에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전소되었으며, 다음해인 2004년 11월에 복원되었다.

기존의 대웅전은 공포 내·외부의 장식적인 조각 솜씨 및 구조수법 등으로 보아 1900년대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6년에 보수·단청되었다. 그리고 대웅전 내의 단집은 이곳 주변에서 보기 드문 화려하고도 장중한 것이었으며, 대웅전 건물 자체도 이 일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건물이었다.

현재의 대웅전은 기존의 대웅전과 같이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자연석으로 쌓은 축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기둥 위에 주심포를 두고 주심포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다포계 양식이며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불단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가 봉안되어 있고, 불상 뒤에는 영산회상도가 걸려 있다. 단집은 2층의 보궁형으로 전소 이후 복원되었지만, 여전히 화려함과 장중함을 자랑하고 있다.

## 구룡사 유래

옛날에 무착대사인지 의상조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학 같은 늙은 스님 한 분이 원주지방에 찾아와 절터를 두루 찾다가 치악산 구룡골에 이르렀다. 스님이 사방을 살펴보니 동쪽으로는 주봉인 비로봉이 솟아있고 다시 천지봉의 낙맥이 앞을 가로지르며, 계곡의 경치 또한 아름다웠다. 그런데 대웅전을 짓자면 연못을 메워야 하는데 그 큰 연못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 용을 내쫓으려고 하는 말을 용들이 듣고는 대사에게 내기를 걸었다. 대사와 서로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용들은 연못에서 날아 하늘로 치솟더니 뇌성벽력과 함께 우박 같은 비를 쏟아놓았다. 이 바람에 근처의 산들은 삼시간에 물에 잠기고 대사 또한 물 속에 빠져 죽는가 했으나 대사는 태연하게 앉았다가 비로봉과 천지봉 사이에 배로 건너 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비를 퍼부은 용들은 이만하면 대사가 물 속의 귀신이 되었겠다 생각하고는 비를 거두고 내려왔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사는 배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홉 마리의 용들이 다 내려오자 대사는 “너희들의 재주가 고작 그것뿐이냐 이제 내가 조화를 부릴 것이니 즉 너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보아라.” 하고 부적을 한 장 그려 연못 속에 넣었다. 얼마 안 있어 연못에서는 더운 김이 무럭무럭 오르며 큰 연못의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물 속에서 뜨거움을 참다 못한 용들은 뛰쳐나와 한 달음에 동해바다로 달아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아홉 마리의 용 가운데 한 마리의 용이 눈이 멀어서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연못으로 옮겨 앉았다. 용들이 달아나자 대사는 못을 메우고 지금의 구룡사 대웅전을 지었다.

한편 뜨거운 물에 쫓겨 달아나던 용들은 얼마다 다급했던지 구룡사 앞산을 여덟 개로 쪼개놓으며 도망했다 하는데 지금도 구룡사에서 동해를 향한 능선은 여덟 개의 골이 있으며 이 때 미처 도망하지 못한 눈먼 한 마리의 용은 구룡사 옆에 있는 용소에서 지난 왜정 때까지 살다가 그해 여름 장마 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또한 지금 아홉 구(九)자 대신 거북 구(龜)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바꾸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본래 구룡사는 스님들의 수양도량으로 세워졌으나 오랜 세월을 두고 흥망성쇠에 따른 곡절이 많았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치악산에서 나는 산나물은 대

부분 궁중에서 쓰게 되어 구룡사 주지스님이 공납의 책임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고, 좋거나 나쁘거나 구룡사 스님의 검사 하나로 통과되는지라 인근 사람들은 나물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별도로 뇌물을 받치기도 했다. 견물생심이라 아무리 부처님 같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여기엔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구룡사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는 하였으나 정신도량으로서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럴 즈음 한 스님이 찾아와 몰락한 이 절을 보고 개탄하면서 이 절이 흥하지 못하는 것은 절로 들어오는 길 입구에 있는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절에서는 그 스님의 말을 믿어 거북바위를 쪼개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후부터 찾아오는 신도는 더욱 적어지고 거찰(巨刹)로서의 명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급기야 절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런 어느 날 도승 한 분이 또 찾아와서 절이 이렇게 몰락하는 이유는 이름이 맞지 않아서라고 하고 “본시 이 절은 절 입구를 지키고 있던 거북바위가 절의 운을 지켜왔는데 누가 그 바위를 동강으로 내 혈맥을 끊어버렸으니 운이 막힌 것이요” 하며 거북이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린다는 뜻에서 절의 이름을 아홉 구(九)자 대신 거북 구(龜)자를 쓰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지금 현판에 새겨진 대로 치악산 구룡사(龜龍寺)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사다리병창

사다리병창은 세림폭포와 비로봉의 주탐방로를 오르다 보면 거대한 암벽군(岩壁群)을 볼 수 있다. 이 암벽군 중에서 바위 모양이 사다리를 곤두세운 듯하여 사다리병창이라 부른다. 바위사이에 자라난 나무들과 어우러져 사시사철 독특한 풍광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병창”은 영서지방 방언으로 “벼랑, 절벽”을 뜻한다.

## 비로봉미륵불탑

치악산의 주봉인 비로봉(飛盧峰)은 해발 1,288m 높이로 지리적으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삼도(三道)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비로봉 위에는 3기의 미륵불탑이 서있다.

3기의 돌탑은 원주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용창중(일명 용진수)이라는 사람이 꿈에 비로봉 정상에 3년 안에 3기의 돌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가 있어 탑을 쌓은 것인데, 1962년 9월 처음 쌓기 시작하여 1964년 5층으로 된 3기의 돌탑을 모두 쌓았으나, 1967년과 1972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진 것을 용창중씨가 복원하였다. 용창중씨는 1974년 작고하였다. 이후 몇차례(1994년, 1999년) 벼락을 맞아 무너져 내린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복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앙의 탑을 ‘신선탑’, 남쪽의 탑을 ‘용왕탑’, 북쪽의 탑을 ‘칠성탑’이라 한다.

## 2) 금대지구

### 영원사

영원사는 판부면 금대리 영원골에 있는 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다. 676년(문무왕 16) 의상(義湘)이 영원산성의 수호 사찰로 창건하여 영원사(永遠寺)라고 하였다가 조선시대 1664년(현종 5)에 인환(仁煥)이 중건하면서 영원사(領願寺)로 바꾸었다. 그 뒤 한때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39년에 이계호(李戒浩)가 중건하였고, 오랜 풍우로 붕괴 우려가 있었던 법당을 주지 김병준(金秉俊)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 건물로는 대웅전과 삼성각(三聖閣), 요사채 2동이 있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여래삼존불을 모신 불단과 신중탱화를 모신 신중단(神衆壇), 영가(靈駕)의 천도를 위한 영단(靈壇)이 갖추어져 있으며, 삼성각 안에는 칠성·산신·독성의 탕화가 봉안되어 있다. 옛 석물(石物)이나 특별한 문화재가 없고 전통 사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다.

## 영원산성(사적제44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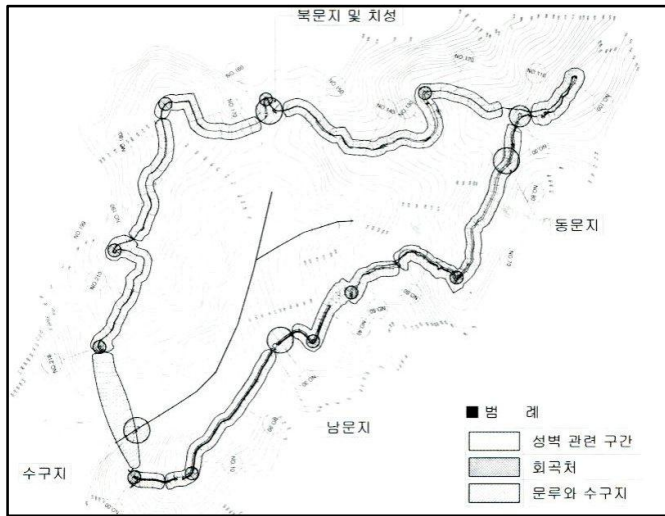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2번지에 위치한 영원산성은 원주 동남쪽 치악산 자락의 해발 700~970m되는 매우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서쪽으로는 치악산 향로봉(1,042m), 동쪽으로는 남대봉(1,181m)이, 동남쪽으로는 시명봉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주에서 신림 방향으로 이어지는 5번국도를 따라 가다가 금대리에 이르러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약 5km 정도 가면 영원사가 나타난다. 영원산성은 바로 영원사 뒤편의 970고지에서 산능선을 따라 석축된 성이다.

1979년 5월 30일 강원도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었고 2003년 6월 2일에는 사적으로 지정된 영원산성은 신라 문무왕 또는 신문왕 때에 쌓았다고 하나 확실한 고증이 없다. 또 후삼국의 혼란기에 양길(梁吉)과 궁예(弓裔)가 이곳에 거처하면서 인근 고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문헌에는 영원성이라 하여 둘레가 3,749척이며, 성 안에 우물 한 개와 샘 다섯 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둘레 4k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으며 높이는 1~3m이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원주와 이웃 고을 주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지켰으며, 치악산의 서쪽 중턱에 있는 금대산성이나 해미산성과 서로 교류하여 적을 물리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주봉인 970고지를 중심으로 좌우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포곡식 산성으로 그 모양은 남북으로 긴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해발 700~970m에 이르는 지대에 축조하였기 때문에 고저의 격차가 커서 주봉 부근에서는 성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성벽은 붕괴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잘 남아 있는 편인데, 특히 동~남쪽에 이르는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은 내외겹축, 혹은 외축내탁 방식을 혼용하여 쌓았으며, 치성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다만 능선의 굴곡에 따라 깊게 돌아나가는 끝지점이 치성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축조되었다. 성벽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성벽 길이는 동~남쪽 성벽이 약 900m, 북~서쪽 성벽이 1,020m, 북쪽의 주봉으로 올라썬 부분이 60m로 현재 확인되는 성벽의 총연장은 1,980m이며, 양능선에서 계곡쪽으로 연결되는 지대는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절벽이고 계곡천





성벽 및 성곽시설물 위치도  
(원주시, 2007, 『원주 영원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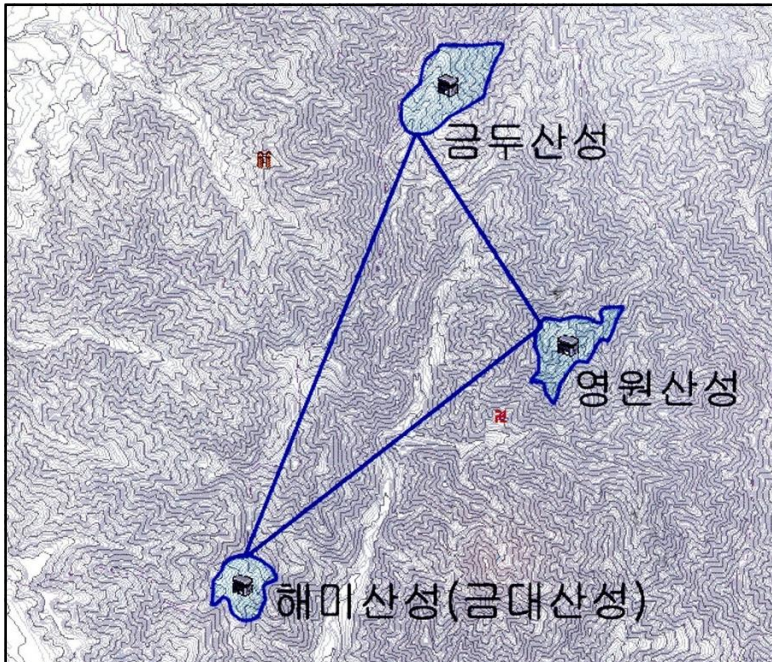
변에는 아마 수구문을 만들면서 양측에 석축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붕괴가 심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영원산성은 지형상 북문지 부근이 가장 완만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곳보다 성벽을 높이 쌓고 성밖에는 해자(垓字)를 파서 성벽으로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성의 여장(女牆)은 통상적으로 1개 내지 수개의 층안을 가진 것이 1타(堞)가 되는 것

이 보통인데 영원산성에서는 그러한 타의 구분없이 전체 성벽 폭의 1/3정도(약 70cm)되는 넓이로 여장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모든 성벽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 성문 주변과 취약한 곳에 주로 설치되었다. 현재 영원산성에서는 북쪽과 남쪽에서 분명한 문지가 확인되고 주변에서는 다량의 와편이 발견된다. 또한 동북~남쪽에 이르는 성벽의 끝 지점과 중간, 그리고 주봉 근처, 북~서쪽에 이르는 성벽의 866고지 주변 등지에서도 와편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장대(將臺)나 후망(候望)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북문지(北門址) 주변과 가까이 있는 성내의 완만한 곳에는 여러 건물지가 확인되는데 군창(軍倉)과 산성사(山城寺)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원산성에 1개의 우물과 5개의 샘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초목이 우거지고 매몰되어 명확한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북서쪽의 건물지 주변에 샘이 흐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금대산성지(金臺山城址)

이 산성은 현재 금대분소 맞은 편의 산에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원주의 성으로 모두 영원산성과 금대산성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이것은 당시까지도 이 두 산성이 가장 현저하게 성의 형태가 남아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산성에 대한 명칭은 가지각색이어서 금대산성(金臺山城)(여지도서, 연려실기술 등), 해미산성(海美山城)(강원도지:1940년판, 한국의 성곽과 봉수 등), 금후산성(金後山城)(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하미산성(下尾山城)(중원문화권유적정밀조사보고서) 등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현지 주민들은 '해미산성'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명칭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며 출처 또한 분명치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여러 명칭의 산성이 현재 금대분소 맞은 편의 산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영원산성과 주변산성 위치  
(원주시, 2007, 『원주 영원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전제)

현재 원주지역에는 대략 4개의 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원산성을 비롯한 3개의 산성이 치악산 금대리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잘 알려진 영원산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산성은 명칭에 혼동을 가져왔다. 특히 두 산성이 모두 금대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그 혼동이 더 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이 성지(城地)에 대해 “금대산성이라고 칭하며, 치악산 서쪽 산요(山腰)에 있고...(중략)...주인(州人) 송필(松弼)이 일찍이 이 성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성이 어느 시기에 신축되었는지는 명확지 않다. 다만 고려 고종때에 원주의 송필이란 사람이 이 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모하여 원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주가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되었다는 『여지도서』의 기록으로 본다면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성임을 알 수 있다.

금대산성은 해발 500-627m에 쌓은 산성이다. 해발 629m와 627m의 봉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하여, 거기서 남쪽과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따라 성벽이 축조되었다.

전체적인 평면구조는 매우 불규칙하며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피식 산성이나, 이런 유형의 산성으로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성의 가장 북쪽인 가장 높은 봉우리에 북문터가 있다. 전체 성벽의 길이는 약 1,820m가 된다.

이 산성의 성벽은 문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면을 석축하고, 안쪽으로는 잡석과 흙을 다져 넣은 이른바 내탁(內托)된 성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성벽의 외면은 비교적 큰 할석으로 면을 고르게 조정하고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수평을 맞추어 차츰 들여쌓기를 하여 정연한 벽면을 구성하고 있다. 성벽은 높이가 높지 않은 편이며, 축조 방법에 있어서도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차츰 석재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점 등에서 고식(古式)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산성이 영원산성보다 고식에 해당되고, 서로 형식이 다르다.

금대산성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조방법은 커다란 할석으로 쌓으면서 석재 사이의 틈에 켜기돌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축조방법은 앞의 고식과는 다른 방법이며, 훨씬 연대가 떨어지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시대에 유행한 방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방법은 흔히 조선 초기에 축조된 읍성들에서 유행한 수법과 견주어진다. 견고성보다는 쌓기에 공력(工力)을 줄이고, 석재를 다듬는 어려움을 더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산성은 고식의 축성 방법과 그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방법이 존재함으로 보아 여러 차례의 수축과 보수가 있었던 성으로 여겨진다.

금대산성에는 크게 3개의 계곡이 있고, 그보다 작은 계곡이 두 곳이 있다. 3군데의 가장 큰 계곡에는 깊게 물이 배수되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수구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지상에 드러난 유구는 없다.

북문지에서 서쪽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지대에서는 원주시내를 관망할 수 있으며, 서남쪽 지대에서는 현재의 영월·제천으로 이어지는 5번국도가 내려다 보인다. 이곳에서는 영원산성이나 금두산성과는 달리 제천과 원주를 잇는 도로로 이동하는 적을 상당히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 금두산성지(金頭山城址)

이 산성에 대한 사실은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1942년도에 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처음으로 ‘금후산성(金後山城)’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록에서 ‘금후산성’이 ‘금두산성(金頭山城)’의 오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 원주에서 금두산성이라 부르고 있는 성지(城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외에도 ‘해미산성’, ‘하미산성’ 등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어서 혼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명칭의 혼동은 현지 주민들의 구전을 바탕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금두산성의 명칭에 대해서는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금두산성’이라는 명칭이 전해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금두고원’, ‘금두골’ 등의 명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부문이다.

이 성의 축조시기는 명확지 않다. 다만 축조방식, 출토유물, 퇴락의 정도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의 기록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통일신라 이전에 축조된 산성으로 판단된다.

향로봉 남서쪽에 위치하는 성으로 금대산성이나 영원산성보다 훨씬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은 향로봉 서남쪽의 해발 1,000m되는 고지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해발 약 700m되는 지대까지 축조되었다. 이곳은 행구동 보문사 방향과 반곡동 한가터를 통하면 바로 당도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성이 사용되었을 당시 원주 주민은 이 통로를 따라 입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의 서쪽과 동쪽 일부 구간에 성벽이 완전히 남아 있는데, 이는 대체로 암반위에 축조하거나 지반이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붕괴를 면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골짜기가 있고, 비교적 평탄한 지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곳을 “금두고원”이라 칭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성 내부는 지난 1960년대 말 화전정리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곳 주민들이 화전으로 개간하여 이용하면서 계단식의 전지(田地)로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가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 3) 성남지구

#### 성황림(천연기념물 제93호)

치악산의 남쪽 신림면 성남리 중심, 성남초등학교 남쪽에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된 성황림(城隍林)이 있다. 이 지역은 온대 지방을 대표할 만한 활엽수림이 있는 곳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고, 우리 조상들의 과거 종교관을 알 수 있는 민속 자료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는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 및 홍보하고 있다.

성황림은 단위면적으로 보면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신성한 곳으로 훼손 등의 인위적인 간섭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주변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 습생식물이 분포하며 텃밭을 일구고 있어 양지성의 잡초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낮은 산등성이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황림은 고산식물에서부터 야산 식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초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 93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하고 있다. 근간에는 많은 초식물이 점차 멸종되어 가고 있어 1990년 8월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숲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이 치악산의 성황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서낭숲(당숲)이기도 하다. 매년 음력 4월 7일과 9월 9일 두차례 성황제를 거행해 오고 있다.

#### \*\* 위음 거리 \*\*

##### 신림면 성남리 윗성남 성황제

신림면에는 2007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5개 마을에서 마을신앙을 행하고 있어 단일 지역에 집중적인 분포와 강한 전승력을 보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다.

성남리 윗성남의 성황제에서 특히 당숲이라 불리는 성황림은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숲으로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성황림을 치악산국립공원에서는 특별보호구로 지정하고 치악8경 중 제4경으로 선정하여 보호 및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성황림은 본래 '아랫당숲'과 '윗당숲'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랫당숲은 훼손되어 1973년 천연기념물(제92호)에서 해제되고, 2003년도에는 국립공원에서도 해제되어 현재 더 이상 성황림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자연환경의 훼손이 곧바로 전통문화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황림 중심부에는 목조 기와집인 성황당이 있다. 당집은 동쪽을 향해 있으나 당집 내부에 마련된 제단은 북향으로 서로 어긋나 있다. 당집 뒤편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고 당집의 좌우로는 높이 20m가 넘는 엄나무와 전나무가 서 있는데, 이와 같이 성황당, 수부, 내(川)로 이루어진 구조는 신림면 지역 제당의 특징적 형식이다. 한편 윗성남 성황당에서 '신목(神木)'으로서 제사를 받는 나무는 당집 왼쪽의 엄나무이다. 오른쪽 전나무는 당집 내부의 제단과 동일한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절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라 한다.

한편 성황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일(祭日)이다. 현재의 제일은 음력 4월 7일이나 과거에는 성남2리의 가둔지 마을이나 아랫성남 마을 등과 함께 음력 4월 8일에 제사를 올려 성남리 마을신앙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유독 이 지역에서만 사월초파일에 성황제를 올린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고찰인 상원사(上院寺) 등 불교의 영향이라 추측된다.

제의과정 또한 유교식 제의 형태를 보이고 오로지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정풀이, 소지, 퇴송 등의 절차는 무속적 요소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성남리 윗성남의 성황제는 불교와 유교, 그리고 무속 신앙적 요소가 융합된 마을공동체 신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제례순서 : 부정풀이(동투풀이)⇒성황제⇒수부제⇒소지⇒음복

- 부정풀이 ; 당집 뒤 개울에서 떠온 물에 숯을 띄우고 성황당 안·밖에 물을 뿌림
- 성황제 ; 분향, 강신, 헌례, 축문 등
- 수부제 ; 성황당 왼쪽 엄나무에 제를 올림



## 상원사(上院寺)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2리 산171번지에 위치한 상원사는 치악산이라는 산 이름을 낳게 한 ‘뽕과 구렁이의 전설’이 어려 있는 유서 깊은 고찰이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상원사는 치악산 남대봉(1,181m) 바로 아래의 해발 1,100m 고지에 자리해 있어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대웅전 앞에 있는 쌍탑은 신라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지방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다. 성남 마을에서 절까지의 3km 구간은 맑은 계곡이 비경을 이룬다.

### ■ 창건 및 연혁 ■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도 하고 신라말 경순왕의 왕사였던 무착선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도하던 중 문수보살에게 기도하여 관법(觀法)으로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고려 말에 나옹이 중창하였고, 월봉(月峯), 위학(偉學), 정암(靜巖), 해봉(海峯), 삼공(三空), 축념(竺念) 등의 선사들이 이곳에서 수도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여러 왕들은 이 절에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도하게 하였다. 6·25전쟁 때 전소되어 폐허화되었던 것을 1968년 당시 주지 송문영법사와 의정보살이 복구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1984년 6월 2일에 문화재자료 제18호로 지정된 대웅전과 심우당(尋牛堂), 심검당(尋劍堂), 범종각(梵鍾閣), 산신각(山神閣) 등이 있으며, 대웅전은 정면 3칸(8.4m) 측면 2칸(5.3m)의 겹처마 팔작지붕에 다포(多包)집이다. 범당의 불상은 새로 봉안한 것이고, 석가래와 기둥 등은 모두 정연하며 두공부에 용두(龍頭)조각을 배치하여 주목을 끈다. 근년의 건축물로는 드물게 보이는 질서있는 건축물이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나란히 쌍탑이 있는데, 이러한 쌍탑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삼국통일 이후로서 왕성한 국력에 의하여 전국 도처에 유행하게 되었다. 이 석탑은 신라 석탑의 정형을 따른 2층 기단 위에 3층 옥개를 형성하였으며, 상부 상륜부는 둥글게 연꽃봉오리 모양을 새겨 일반 탑에서 보기 어려운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대웅전의 좌측 탑의 바로 앞에는 화염문(火焰紋)을 보이는 불상광배와 연화대석(蓮華臺石)이 남아 있어 본래 석불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나 현재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절 뒤쪽 2백m 지점에는 높이 1m의 지극히 단조로우나 매우 오래된 부도가 있다.

### ■ 대웅전(문화재자료 제18호) ■

상원사는 치악산 남쪽 남대봉 중턱의 해발 1,100m의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설과 경순왕의 왕사였던 무착대사가 지었다는 설이 있다. 가람배치를 보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그 앞에 2기의 삼층석탑이 있고 광장 끝에 종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고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쌍탑을 두는 양식은 대체로 삼국통일 이후에 등장하였고 왕성한 국력에 의하여 전국 도처에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웅전은 고려말 나옹스님에 의해 새롭게 지어졌으나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것을 1968년에 다시 지은 후에 1988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중창하였다. 대웅전은 높은 곳에 조성된 사찰답게 자연지형에 맞게 배치되었으며 비교적 낮은 기단 위에 조성되었고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다포계 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형태의 건물이다.

기단은 60cm의 높이에 2단의 잔다듬과 그 위에 잘 치석된 갑석(甲石)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원형 초석 위에 민흘림 원주(圓柱)를 사용하였다. 정면 3칸에는 주간에 4짝의 교전문과 2짝씩의 교창(交窓)을 달았으며, 공포는 주간 사이에 2개의 공간포 2개를 배치한 다포집으로 중앙 2개의 기둥 위에는 용두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겹처마에 내부바닥은 마루널 바닥으로 천장은 2중 우물천장이다.

대웅전 좌측 뒷면에 주지실인 심우당이 있고 요사는 좌측 낮은 지대에 있다. 그리고 요사채 좌측 뒷면 높은 지대에 산신각이 있다.



## ■ 상원사지 석탑 및 광배(강원도유형문화재 제25호) ■

상원사지 삼층석탑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으나 1964년에 거의 완전할 정도로 보수하여 보존되어 있고, 현재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층석탑은 대웅전 앞에 쌍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형식은 거의 동일하다. 높이는 2.9m이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되어 있고 연대는 대략 고려 전반기로 추정된다. 몇 장의 지대석 위에 2층 기단을 구성하였고, 하대 중석에는 우주를 모각하였으며 4매의 하대 갑석 상면에는 2단의 중석받침이 있다. 2매로 된 상대 갑석 위에는 탑신 괴임이 있고 낙수면은 완만하다. 3층의 탑신부는 체감율이 적고 옥개석의 낙수면은 경사가 급한 편이다. 옥개석 받침은 모두 1단씩으로 많이 생략되어 비둔한 느낌을 주고 기단부에 비해 이 탑신부의 비율이 너무 적어 왜소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잃은 듯 보인다. 상륜부는 동탑이 보개(寶蓋)·수연(水煙)의 일부, 서탑이 노반(露盤)·보륜(寶輪)의 일부가 남아 있다. 1964년 탑의 보수 당시 탑신에서 금불동 4구가 발견되었는데 관음보살좌상, 인왕상(仁王像), 아미타여래입상, 석가여래입상이었다고 한다. 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탑에서 옥개받침 없이 사형(斜形)으로 처리된 점이며, 이러한 양식은 고려전기에서도 후반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광배란 불보살(佛菩薩)의 후광(後光)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조각이나 회화에 흔히 표현된다. 부처의 광명은 색광(色光)과 심광(心光)으로 나뉜다. 색광은 부처의 몸에서 밖을 향해 나오는 빛, 즉 신광(身光)을 말하며, 심광은 부처에게 있는 지덕(智德) 원만(智德圓滿)의 빛, 지혜광(智慧光)을 뜻한다.

상원사 광배(光背)는 현재 상원사 경내 동탑 앞에 놓여 있다. 불상은 오래 전에 없어졌으며 현재 광배와 대좌(臺座)의 하대석 일부만 남아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었으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광배는 주형거신광(舟形擧身光)인데, 2조 융기선(隆起線)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그렸으며 두광 중심부에 원을 새기고 그 주위에 8장의 연꽃을 돌렸다. 또 당초문(唐草文)을 조각하고 두광과 신광 외부에는 사실적으로 화염문을 양각하였다. 그러나 신광 부분은 파손되었고 우측의 대부분이 망실되었다. 대좌는 상대석과 중대석이 없으며 하대석의 일부가 남아 8각형의 대좌였음을 짐작케하며 복판복련(複瓣伏蓮)이 8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 용천(龍泉) ■

상원사는 치악산 높은 능선에서 동쪽으로 약간 내려간 해발 천미터 되는 높은 지대의 반석위에 세운 절인데 절터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흠이었다. 절을 창건한 무착대사는 자기 나름의 불심과 신념을 가지고 석장으로 바위틈을 찌르니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 물만으로도 충분하여 여름에도 손이 시리도록 차갑다.

## ■ 상원사 중수비 ■

1932년에 건립된 상원사 중수비는 현재 원주시 무실동 산123번지 대성학원 향토관에 소장되어 있다.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는 희귀한 사적비(事蹟碑)로 상단에는 '상원사적(上院寺蹟)'이라는 해서(楷書)로 쓴 글자가 있고, 우측 첫 줄 위에서 아래로는 '치악산상원사중수기(稚岳山上院寺重修記)'라고 쓰여 있다. 앞면은 12행으로 1행은 40자이며, 뒷면은 상원사가 중건될 때 시주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목비(木碑)의 글은 이인상(李寅相)이 지었고, 이태회(李泰會)가 새겼다. 『치악산상원사중수기』의 내용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산은 높고 물은 맑아 천하에 제일이다. 우리 조선에서 제일인 까닭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고려'라고 칭하는 것이 이러한 까닭이다. 일찍이 그 대략을 논할 때 즉, 북쪽으로는 금강산과 오대산의 웅위(雄偉)함이 있고 남으로는 방장(方丈)과 두류(頭流)의 장관이 있다. 학성(鶴城)의 동쪽에 흡사 용과 호랑이가 틀고 앉은 모습과 같은 산이 있어 치악(雉岳)이라 하니 5백년 전성기 때에 조정에서 특별히 복국우세(福國佑世)로 동악단(東岳壇)에 매년 월일(月日)에 수령(守令)·방백(方伯)으로 하여금 제관(祭官)을 정하여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산의 정상에 상원사(上院寺)가 있으니 즉 신라 경순왕의 왕사(王師)인 무착대사(無着大師)가 창건하였다. 산의 명승(名勝)과 절의 오래됨이 이로부터이니 즉 사람들이 말하고 이른 것은 다시 굳더더기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 …(마멸)… 이런 관계로 처음 창건된 이래로 자주 일곱 번을 중수(重修)하였다. 산의 영험으로 인연하여 고명선덕(高明禪德)이 여기에 머물면서 이에 따라 무너진 것을 고치고 수습하여 천고에 조사(祖師)의 자취는 계

속 연이어져 황폐되지 아니하니 이것 또한 대웅씨(大雄氏, 부처)의 큰 신통스러운 조화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매양 중건(重建)할 때에 밝은 신령스러움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축념선사(竺念禪師)의 일곱 번째 세움에도 역시 뜰에 있는 탐의 뇌굉(雷轟)이 부딪친 곳에 순금(純金) 부처 1위를 받들고 나오니 그 신이한 조화의 도움이 이와 같이 명명하다. 아. 인연화복이 축념선사가 내주(來住)한 이때에 있었고 마침 절이 폐하였으나 이와 같은 금불상의 신이한 징조로 인하여 많은 뜻있는 이를 모아 중건에 모을 수 있었다. 이 아름답고 빛나는 경신(更新)에 동참하는 화주들의 보시로 하여금 부처님의 인연을 심고 여래(如來)가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축념선사를 돕게 하였다.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나 나는 본래 문사(文辭)에 능하지 못함에도 깊이 선사(禪師)의 믿음과 발원에 느낀 바가 있어 거친 글을 엮어 그 전말(顛末)을 기록한다. 화주의 보시와 그 꽃다운 이름을 왼편에 열록(列錄)하니 천년에 불후(不朽)할 공적(功績)이다. 불기(佛紀) 2960년 임신(壬申) 8월(月) 일에 창강거사(蒼岡居士) 이인상(李寅相)이 기록하다.

#### 4) 황골지구

##### 흥양리마애불좌상(강원도유형문화재 제117호)

소초면 흥양리에 소재한 마애불좌상은 현재 강원도유형 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되어 있는 높이는 1.7m의 석각이다. 치악산 입석사(立石寺) 근처에 있는 입석대(立石臺)로부터 약 30m 떨어진 높이 3.3m의 암벽에 부조되어 있다. 마애불은 양호한 편인데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풍만하고 볼륨감이 있다. 큼직한 나발(螺髮)속에 육계가 솟아있고 나발 사이에 계주가 표현되었다. 상호(相好)는 풍만하나 엄숙한 느낌이다. 삼도(三道)는 없고 법의는 통견(通肩)으로 어깨를 두껍게 덮고 있다. 가슴부분에 내의의 끝단이 보이고 왼손은 선정인(禪定印)이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검지와 엄지를 맞대어 미타정인(彌陀定印)을 하고 있다. 결가부좌를 하였는데 다리 위에 의습(依褶)이 단순화되어 다리의 윤곽과 평행으로 나타나 있다. 광배는 원형 두광(頭光)과 신광이 이어진 거신광(擧身光)으로 아무 장식이 없다. 대좌를 보면 하대와 중대는 선각으로 윤곽만 나타내었고 상대는 단엽(單葉)의 양련과 복련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연화좌(蓮華坐)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풍만감이 있으나 비대한 느낌은 없고 최근에 마애불 좌측하단에 “元祐五年庚午三月日”이라는 명분이 발견되어 마애불의 조성연대가 1090년(선종7)으로 밝혀졌는데 11세기 한국조각사의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입석사(立石寺)

입석사는 윗황골 동쪽 입석골, 치악산 능선 밑에 있는 조계종 사찰이다. 입석사의 이름은 입석대에서 따온 것으로 생각된다. 절의 자세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이곳 절 뒤 토굴에서 수도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원래 입석사는 입석대에서 원주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곳에 암자로 있었는데 현재 위치에 신축한 것이라고 한다. 옛 절터에 있던 폐석재들을 모아 높이 2.2m의 청석탑 1기를 세웠는데 옥개석 5개중 3개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어서 통일신라 때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사맹의 『八谷集』에 입석대 및 입석사에 대한 시문이 전해오고 있다.

### ■ 입석사 석탑(문화재자료 제19호) ■

입석사 석탑은 점판암을 이용한 청석탑이라고도 하며, 1984년 6월 2일에 문화재자료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태종(1400~1418)이 즉위한 후 어린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 운곡 원천석을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치악산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며 나타나지 않으므로 태종이 스승을 생각하며 세운 탑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이 탑은 입석사의 입석대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탑부재를 모아 입석대의 큼직한 암반 위에 세워 놓았다. 탑의 높이는 약 2.2m로서 현재의 각 부재로 보아 화강암 부재와 점판암부재가 있으므로 2기의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입석사 석탑은 연화문이나 탑신석들의 치석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3매의 청석탑 부재인데 고려시대에 이르러 유행하게 된 청석탑의 일례를 이곳에서 볼 수 있다.

## 입석대

신라의 의상대사가 토굴을 짓고 수도한 곳으로 전해지는 입석사는 황골에서 치악산을 오르는 계곡변에 위치한 작은 절로, 입석사 앞에는 '대바위'라고도 불리는 입석대가 있다.

입석대는 높이 20m, 가로세로 약 5m인 네모꼴의 커다란 바위로 30m높이의 절벽 위에 우뚝 솟아나 있다. 과거에는 암벽 등반가들의 연습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기도 하였고, 이곳에서는 원주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 보문사(普門寺)

보문사는 국형사(國亨寺) 북동쪽으로 약 2km 위에 있으며 향로봉 아래, 웃고문골에 있는 사찰이다. 국형사를 '아랫고문절'이라고 하고 보문사는 '웃고문절'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신라 경순왕(927~935) 때에 무착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있다. 대웅전과 요사는 근래에 중건한 것인데 청석탑이 있어서 오래된 절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는 보문연사(普門蓮社)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 보문사에는 대웅전 이외에 명부전, 산신각, 용왕각이 있으며,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3호인 청석탑이 보존되고 있다.

### ■ 보문사청석탑(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3호) ■

보문사 청석탑은 보문사 경내에 있다. 1970년경 현재의 절을 신축하던 중 땅속에서 발견되어 복원한 것으로 점판암으로 이루어진 탑이다.

2층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올려놓은 구조인데, 기단과 탑신의 모습이 비슷하여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현재는 이 탑을 보호하기 위해 탑의 아래에 화강암의 높고 널찍한 2층의 단을 마련해 놓았다. 아래·위층 기단은 윗면에 연꽃을 새겨놓았고, 탑신부의 각 몸돌에는 불교문자인 범어(梵語)를 새겼다. 현재 탑을 이루고 있는 전체가 모두 원래의 것은 아니고, 탑신의 2·3·4층의 몸돌과 5개의 지붕돌, 두 기단의 맨윗돌 외에는 최근에 새로 만들어 끼워놓은 것이다.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있었던 탓인지 심하게 닳고 부서진 부분이 많다. 이러한 탑은 신라 말기에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현재 해인사(海印寺), 금산사(金山寺) 등 몇 곳에만 있는 희귀한 탑이다. 이 탑 역시 고려시대의 청석탑 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탑이다.

## 동악단

치악산에는 예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산제를 거행하여 왔다. 『동국여지승람』 원주목조에 보면 “치악산은 원주의 진산이다. 산정에는 보문당이라는 당이 있어서 춘추로 향을 내려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게다가 『세종실록』 권128 오례조에 “원주에는 명산이 있는데 치악이다. 주(州)의 동쪽에 있으며 춘추로 향을 내려 제사를 지내는데, 소사(小祀)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치악산제는 소사로서 봉정되어 있어서 부락단위의 산신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향과 축목을 내려 치제한 산제였던 것이다.

예전에 치악산제는 동악단이 설치된 국형사에서 원주·평창·정선·영월·횡성 등 5개 군의 군수가 모여 매년 제향하였다. 이곳 동악에는 조선 정종(定宗) 때 공주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서 100일 기도를 드려 동악산 신령의 가호에 의해 완치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후 왕명으로 이곳에 동악단을 쌓게 한 연후에 봄·가을을 택하여 호국대제(護國大祭)를 봉행하게 하였다고 한다.

치악산 산신제는 원주가 시와 군으로 나뉘었을 때는 원주시는 국형사 옆에다 1982년 건축한 ‘동악단(東岳壇)’에서, 원주군은 구룡사에서 각각 나누어 산제를 지냈다. 이후 강원감영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2005년부터 강원감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축제를 결합한 강원감영제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 5) 부곡지구

### 태종대(문화재자료 제16호)

황성군 강림면 강림2리에 있는 태종대(太宗臺)는 조선 태종과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관계되는 유적으로,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원천석은 고려 때 좌명공신(佐命功臣)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역임한 원경(元鏡)의 19대 손이며 충숙왕 17년에 종부사령(宗簿司令)을 지낸 윤적(允迪)의 둘째 아들로 원주 원씨의 중시조이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조 태조의 왕가 형제간의 살육을 통탄하며 분노를 느낀 나머지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開城)을 떠나 이곳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그는 고려왕정(高麗王政) 복고를 위하여 반기를 든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이며 이양소(李陽昭)·남을진(南乙珍)·서견(徐甄)과 더불어 고려 사처사(四處士)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원주시 행구동 석경촌(石逕村)에 그의 묘소가 있고 칠봉서원(七峰書院)에 배향되었다.

이방원이 조선조 3대 태종으로 등극하여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스승으로 섬겼던 운곡 원천석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政事)를 의논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원천석은 태종이 이곳에 오는 것을 미리 알고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여 치악산으로 들어가면서 개울에서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리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태종이 이곳에 도착하여 빨래하는 노파에게 운곡이 간 곳을 물었으나 노파는 원천석이 일러 준대로 거짓으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은 그곳으로 가서 스승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이 바위에서 기다리다 스승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태종이 운곡을 기다리며 머물렀다 하여 뒤에 이곳을 '태종대'라 하였으며 '주필대(駐蹕臺)'라는 비석을 세워 누각 안에 보호하고 있다. 태종대 아래의 기암절벽에는 다음과 같이 각자(刻字)되어 있다.

先生事蹟略記弁岩太宗臺太宗王訪耘谷元先生自覺林避入弁岩上駐  
(선생사적약기변암태종대태종왕방운곡원선생자각림피입변암상주)  
輦于此官其子賞其婢而返篤後人因以名之崇禎後八十年癸卯夏刻  
(련우차관기자상기비이반독후인인이명지승정후팔십년계묘하각)

## 변암(弁岩)

원천석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조 태조의 왕가 형제간의 살육을 통탄하며 분노를 느낀 나머지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開城)을 떠나 이곳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원주시 행구동 석경촌(石逕村)에 그의 묘소가 있고 칠봉서원(七峰書院)에 배향되었다.

변암은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데 운곡 원천석 선생이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전하는 굴바위이다.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300m쯤 아래에 있는데 생긴 모습이 고깔처럼 생겼다고 하여 '변암'이라 불린다. 바위 아래에는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옆에는 돌우물이 있어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다. 원천석 선생은 이곳에 온돌을 만들고 고사리와 나무 열매로 식사를 대신하였다고 전해진다.

변암 안쪽 벽면에는 “변암”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옆으로는 “太宗■東二十里”라는 문구가 있다. 또 바깥 벽면에는 “開穿石井常■湯 收拾山蔬且慰貧”이라는 시구(詩句)가 있고, 옆쪽 바위 아래 면에도 ‘耘谷元先生諱天錫麗末隱居此山下我太宗以甘盤舊恩累召不至幸其盧先生避入于此崇禎後八十年癸卯後孫尙中識不■上高其義’라고 새겨져 있다.

## 노구소(老嫗沼)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왔을 때 원천석은 이것을 미리 알고 노파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 반대로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잠시 후에 태종이 오자 원천석의 딸대로 길을 반대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 일행이 길을 떠나자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노파가 이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얼마 전까지도 이 노파를 모신 당이 노구소 옆에 있었다고 하며, '노고소(老姑沼)', '노호소(老湖沼)'라고도 한다.



노구소 전경



노구사(老嫗祠)

### Ⅲ. 치악산 지역의 지명 및 유래

#### 1. 소초면 학곡리

##### 1) 위 치

학곡리는 치악산 국립공원 및 구룡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횡성군 우천면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평장리, 남쪽으로는 치악산이 횡성군 강림면을 가로막고 있다. 북쪽은 횡성군 우천면과 접하여 있다. 동과 남으로는 치악산과 그 줄기인 매화산이 막혀 있다.

##### 2) 유 래

현 학곡저수지를 활골저수지라고 하는 등 활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활골을 한자로 학곡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다.

##### 3) 연 혁

본래 소초면의 지역으로서, 팔리(八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곡, 이흥, 백교, 수철, 삼신, 신흥, 장대, 칠송, 토동, 토정을 병합하여 학곡리라 하였다.

##### 4) 특이사항

학곡리는 주민 90% 이상이 관광객을 상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다.

##### 5) 주요지명

###### 길재

구룡사 입구 신흥동에서 평장리 안골로 넘는 고개이며, '당재', '길현'이라고도 한다. 고개가 길다고 하여 '길재'라 하였다.

## 구룡골

구룡사 앞의 긴 골짜기를 말하며, '구룡계곡', '큰골'이라고 한다. 구룡사가 있는 골짜기를 '구룡골', '구룡계곡', '큰골'로 부르는데, '구룡골', '구룡계곡'은 구룡사 부근에서부터 부르는 이름이고, '큰골'은 학곡저수지에서부터 골짜기 전체를 칭하는 이름이다.

## 대곡(大谷)

'큰말'이라 불리우던 마을로서, 영말 남쪽 구룡사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하고, '큰골'이라고도 한다.

## 대성암터

구룡폭포 위에 있었다는 절터이다.

## 도실암

구룡사 위 화전민이 살던 마을로 치악산약초원이 있던 자리이다.

## 동락원

구룡사 동쪽 개울 건너에 있던 마을로서 현재는 집터만 남아 있다.

## 매화산

한다리 남동쪽에 있는 높이 1,084m의 산이며, 신선봉이라고도 한다. 소초면 학곡리, 황성군 우천면, 황성군 강림면의 경계로서 수레너미를 경계로 하여 치악산과 구분되며, 북쪽에는 강림으로 넘어가는 전재가 있다.

## 배너미재

세림폭포에서 이어지는 배너미골로 연결된 고개를 말하며 '배네미재'라고도 한다. 옛날 큰 홍수가 났을 때 이곳으로 배가 넘어 다녔다고 해서 유래하였다. 천지봉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비로봉에 닿고 남쪽으로는 강림면 부곡에 닿는다.

## 새재골

새로 생긴 고개 밑이라 하여 '새재'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이 골짜기는 원주시로 통한다.

## 선녀탕

구룡소와 세렴폭포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도실암골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우물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온 곳이라 해서 '선녀탕'이라 부른다.

## 세렴폭포

구룡사 큰골에서 배너미골 입구에 있으며, 천지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는 곳이다.

## 수레너미재

한다리에서 동남쪽 골짜기로 길게 이어지는 고개로서, 동쪽으로는 강림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매화산 능선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진달래능선을 거쳐 치악산 천지봉과 연결된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찾아 강림으로 갈 때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 속새울

무쇠점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속새울, 동골로 가는 길에 있으며, '삼신동 속새울'이라고도 한다. 3을 뜻하는 '석'의 영서방언 '속'이 쓰여 '속새울'이 되었다.

## 영말

구룡사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마을을 말하며, 현재 자연학습원 위치이고, '이흥'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역이 있었다고 하여 역말>영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마을 이름을 '이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역과는 상관없이 이흥>이흥>이영>영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 천지봉

영말 골짜기 위에 위치하며, 구룡사의 동남쪽에 있는 높이 1,086m의 봉우리이다. 8개의 능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구룡사 대웅전 자리에 살고 있던 9마리의 용 중 8마리가 동해로 황급히 도망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구룡사에서 마주 보이는 가장 큰 봉우리로 북쪽으로는 진달래능선을 거쳐서 수레너미, 매화산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배너미재를 거쳐서 비로봉에 닿는다.

## 2. 소초면 홍양리(황골)

### 1) 위 치

홍양리는 소초면 남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치악산 줄기인 삼봉과 투구봉으로 막혀 있고 서쪽으로 원주시 태장동, 남쪽으로 원주시 봉산동과 행구동, 북쪽으로 수암리와 접하고 있다.

### 2) 유 래

원래 원주군 본부면의 지역으로서 홍양, 또는 이리(二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홍양리로 부르게 되었다. 홍양 마을의 이름을 따서 홍양리라고 하였다.

### 3) 연 혁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시탄, 황곡, 상초구, 송문, 직산을 병합하여 홍양리라 하여 원주면에 편입되었다가 1938년에 소초면에 편입되었다.

### 4) 특이사항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원주시와 접경하고 있어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입석대와 입석사, 범문사가 있고 황골엿과 엿술이 특산물로 유명하다. 원주시와 접경을 이룬 관계로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으며, 황골은 특히 근래에 숙박업소와 식당이 많아져서 원주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 5) 주요지명

#### 삼봉

치악산의 자락으로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쥐너미재에서 다시 북쪽으로 능선이 시작되는 첫 봉우리이며, 북으로 투구봉과 토끼봉이 있다. 일제 때 혈을 끊기 위해 이곳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 신선대

입석대 남쪽에 있는 높이 20m의 바위를 말한다. 치악산 산신령이 이곳에 있는 물을 즐겨 마셨다고 하여 해마다 산신제를 지낸다고 한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도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 원통재

황골과 황성군 강림면을 잇는 고개로 치악산 능선을 넘는다. 태종 이방원이 원천석을 찾다가 못 찾아 쉬면서 “못 찾아 원통하다”고 해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쥐너미재

범골에서 도실암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북쪽으로는 삼봉과 투구봉, 토끼봉 능선이 있다. 쥐떼가 넘어간 고개라 하여 ‘쥐너미재’라고 한다.

옛날 범골에는 범사(凡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쥐가 너무 많아 스님들이 쥐등살에 견디지 못 하고 절을 떠났다고 한다. 하루는 그 많은 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지어 범사를 떠났는데 그 후로는 이 범사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고 절은 폐사되었다고 한다.

## 황골

피미에서 입석대까지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황골은 골짜기 색깔이 노랗다는 뜻이 아니라 크다는 의미의 한+골 > 한골 > 항골 > 황골로 변천된 것이다. 따라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실제로 황골은 아래황골, 윗황골로 나뉘는 만큼 큰 골짜기이다. 한편 태종 이방원이 지나갔다고 하여 임금 황(皇)자를 써서 황골로 불리기도 한다.

## 피미

새두둑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옛날 전란 때 노적더미로 가장하여 적병을 물리쳤다고 한다. ‘피’는 옛날에는 벼 대신에 구황작물로도 쓰던 일종의 곡식이다. ‘미’는 산을 뜻하는 ‘뫼’가 변한 것이다 즉 피+뫼(山) > 피뫼 > 피메 > 피미가 되었다. 뜻은 ‘피가 많은 산’, ‘피농사를 짓던 산’ 또는 전설과 연관시켜 ‘피짚으로 덮은 산’으로 풀이된다. ‘피’가 들어가는

지명에는 대체로 피를 많이 흘렀다거나 전쟁과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수가 많은데 이처럼 곡식의 일종인 피와 관련된 것도 많이 있다고 한다.

### **새두둑**

피미 동쪽에 있는 마을로 투구봉의 동쪽 아래에 있으며, 초구리(草邱里)라고도 한다. 역새가 많은 둔덕이라고 해서 '새두둑'이라고 불렀다.

### **문수사터(文殊寺)**

문수골에 있던 절터로서, 마을사람들은 문수암이라고 한다. 연혁은 알 수 없으나 산재한 기록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 서거정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였고 운곡 원천석의 시에도 문수사가 있어서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석불좌상이 남아 있으나 많이 훼손되었다.

### **봉사절터**

범골 낙수봉 밑에 있던 절터로서 높이 1.5m 가량의 축대가 길게 남아 있으며 오른쪽 낭떠러지에도 축대가 남아 있다. 건물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고 큰 우물도 있다. 기암절벽에서는 아직도 민간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나 봉사절터라는 이름만 전할 뿐 연혁은 알 수 없다.

### 3. 원주시 행구동

#### 1) 위 치

행구동은 동쪽으로는 치악산을 경계로 하여 횡성군 강림면, 서쪽으로는 봉산동, 남쪽으로는 반곡동, 북쪽으로는 소초면에 접해있다.

#### 2) 유 래

원래 원주군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지역으로 살구나나무가 많으므로 살구둑, 또는 행구(杏邱)라 하였다.

#### 3) 특이사항

행구동은 예로부터 순수한 농촌 지역이었으며 고려말의 충신 윤곡 원천석 선생의 얼이 숨쉬는 곳이다. 국형사와 관음사, 연암사, 보문사 등 고찰이 많으며 골짜기마다 비경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이 때문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어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숙박업 및 음식점이 들어서고 있다.

#### 4) 주요지명

##### 가는골

현재의 관음사 길을 말하며, 길이 좁고 가늘다고 하여 '가는골'이라 한다.

##### 가리봉

고문골에 있는 바위로서 '가리봉바위'라고도 한다. 바위 두개가 나란히 선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얹혀 있다.

##### 개산절터

연암사 우측, 치악산 능선 부근에 가리봉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절터로서 높이 2m 이상의 축대가 길게 남아 있고 많은 석재와 기와편, 도자기조각이 산재해 있다. '개산절터'라는 이름만 전할 뿐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다.

## 고둔치

행구동 관음사 동쪽으로 난 고개를 말한다. 황성군 강림면 부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았다고 한다.

## 고문골

오리현 뒤에서 국형사와 보문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국형사 앞까지를 '아랫고문골', 그위 보문사까지를 '윗고문골'이라고 부른다. '보문골', '범수골'이라고도 한다. 보문사의 예전 이름이 '고문절'이었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고문골'이라 부른다.

## 돌경이

신월랑 북동쪽, 석경사가 있는 마을이며, '돌개', '석경', '석경촌'이라고도 한다.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인 운곡 원천석의 묘소와 재실이 있으며, 매년 가을 원주 원씨의 시제(時祭)가 이곳에서 봉행된다.

## 신다랭이

살구둑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신월랑'이라고도 한다. 작은 논배미가 쉰개나 될 정도로 많아 '쉰다랭이'로 불리워졌다고 한다. 지금은 큰 저수지가 있어 주민의 농업용수 제공은 물론,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다. '쉰다랭이'가 '신다랭이'로 변화되었고 이를 한자로 적어서 '신월랑(新月朗)'이라고 하였다. '新'과 '郎'은 음차를 한 것이며, '月'은 의미를 딴 것이다. '다랭이'는 산골짜기에 있는 층층으로 된 좁은 논배미를 가리키는데 다랭이를 달과 결부시켜 '신월랑'이 되었다.

## 4. 판부면 금대리

### 1) 위 치

원주시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횡성군 강림면과 경계를 하고 서쪽으로는 서곡리, 남쪽으로는 신림면과 충북 제천, 북쪽으로는 관설동과 접하고 있다.

### 2) 유 래

금 또는 금항아리가 묻혀 있다는 집터의 전설인 금시발복(金時發福)에 의해 오늘날까지 금대리로 불려지고 있다. 또는 금대산성 밑이라 하여 금대리라고 부르다고도 한다.

### 3) 연 혁

원래 원주군 부흥사면의 지역으로 금대골, 금대곡이라 하였다. 또는 부흥사면의 첫 동네라서 일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도사리, 한여, 회론, 원동, 문현, 일론을 병합하여 금대리라고 하여 판부면에 편입되었다.

### 4) 특이사항

금대리 지역은 치악산과 백운산이 겹치는 계곡에 위치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금대리의 명소인 회전터널은 루프식 터널로서 '또아리굴' 또는 '금대터널'로 불리고 있다. 길이가 1,970m로 또아리처럼 원형을 그려 한바퀴 돌아 치악산을 뚫고 신림 방면으로 나가다가 다시 치악터널을 맞게 된다. 치악터널은 3,650m로서 10리 굴이라고 불린다. 또아리굴 속에는 종유동굴이 있는데 이 속에는 작은 연못과 종유석 및 넓은 광장이 있어 관광지로서 개발 전망이 밝은 곳이다. 6·25 동란 때는 국군 및 지역민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 5) 주요지명

### 가리 파고개

금대리와 신림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하며, '치악재'라고도 한다.

### 금대골

금대초등학교 앞 골짜기를 말하며, 금대리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금대골을 넘으면 쇠마답과 신촌리 새말이 나온다. 옛날에는 이 고개를 넘어서 새말 학생들이 금대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 느릅실

금대초등학교 뒤의 큰 마을을 말하며, 느릅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느릅실'이라고 한다.

### 도둑바위

가리파재 아래, 현 그린가든 바로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옛날에 소장수 등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 다닐 때 이 바위 뒤에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물건을 빼앗았다고 하여 '도둑바위'라 한다.

### 바랑소

영원사 밑에 있는 소로서, 모양이 마치 종이 지고 다니는 바랑같다고 하여 '바랑소'라고 부른다. 지금은 거의 다 메워지고 흔적만 남아 있다.

### 사천왕사터

금대3리 원동 안에 있는 절터로서, 1989년 실시된 중앙고속도로 예정지 지표조사에서 석탑재와 축대 및 기와편들이 출토되어 1991년에 발굴되었다. 정확하게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고려 현종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암자 형태로 16,7세기까지 내려오다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 때 중앙선 철교공사와 광복 후 도로개설 당시에 절터

의 많은 유물이 파손되었다고 한다.

### 산성사터

기록에 의하면 영원산성을 지키기 위한 절이었다고 한다. '영원사'를 의미하는 지 '산성사'라는 다른 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세존대

남대봉 서쪽 바로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하며, 바위가 마치 엄지 손가락을 세운 것 같다고 하여 엄지바위, 만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만물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 수리봉

곰네미와 생개골 위, 내원 북동쪽에 있는 높이 811m의 산을 말한다. 독수리가 새끼를 치고 살았다고 하여 '수리봉'이라 한다.

### 아들바위

영원사 위에 있는 바위로서 영원사에서 계곡방향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 바위에서 득남하기를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아들바위'라 한다.

### 원동(院洞)

내원골 입구, 무두러니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며 '원터'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원집이 있었다고 한다.

### 일론(日論)

금대계곡 안쪽에 있는 마을로서, '홀론', '홀른'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김제 갑 장군이 왜병을 크게 무질렀는데 이 때 계곡에 피가 많이 흘렀다고 하여 '홀론', '홀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골짜기에 있는 논이라 해서 실(谷)+논(畝) > 실논 > 실론 > 일론이 되었다는 추정도 있다.

## 5. 신림면 성남리

### 1) 위 치

성남리는 신림면사무소에서 3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황둔리, 서쪽으로는 금창리, 남쪽으로는 신림리, 북쪽으로는 남대봉을 경계로 하여 황성군 강림면과 접하고 있다.

### 2) 유 래

성남리 북쪽에 있는 치악산에 금두산성이 위치하고 있어 성(城)의 남쪽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성남리'로 불리어지고 있다. 또 백제시대 궁예가 성남리 서북쪽 절골에 절을 짓고 한동안 머물렀다고 기록에 전하는데, 이 때의 절 이름이 석남사(石南寺)였다. 석남사의 명칭이 변화를 하여 '성남리'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 3) 연 혁

원래 원주군 구을파면 지역으로 성남 또는 사리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가둔지, 사동, 상원동, 전불, 주련동을 병합하여 성남리라 하였다.

### 4) 주요지명

#### 대덕바위

성황림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아랫성남과 윗성남 경계에 있는데, 지금은 다래덩굴이 우거져 잘 보이지 않는다. 윗성남쪽 다래덩굴을 걸으면 윗성남 처녀가 바람이 나고 아랫성남쪽 다래덩굴을 걸으면 아랫성남쪽 처녀가 바람이 난다고 한다. 마을 처녀 중 한 처녀가 바람이 났는데 그 아버지가 석수쟁이를 불러 대덕암이라 새기고 난 후 '대덕바위'라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 무당소

회골폭포 앞에 있는 소를 말하며, 전에 무당이 빠져 죽어서 무당소라고 한다.



## 석남사(石南寺)터

절골의 경작지 일대로서 석축과 석재가 다수 발견되어 상당히 큰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절터에서 '석남■', '■만', '■대평', '■남사' 등의 명문이 있는 기와가 발견되어 이곳이 '석남사지'였음을 확신할 수 있다. 석남사는 궁예의 행적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늦어도 조선시대 초기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이 지역을 '성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석남사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 수림지(樹林地)

성남1리 본동 입구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이곳에는 큰 소나무 20여 주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다. 옛날에는 더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으나 홍수로 인해 많이 소실되었다. 본래는 이곳 노송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송림의 수가 줄고 특별한 가치가 없어 제외되었다.

## 싸리재

성남에서 황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싸리나무가 많다 하여 '싸리재', '싸리치재', '싸리고개'라고 한다. 신림터널이 생기고 난 후 싸리재는 거의 폐쇄되어 기존의 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절골

윗성남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하며, '사동'이라고도 한다. 옛날 석남사가 있던 곳이어서 '절골'이라고 부른다.

## 주령골

아랫성남 남쪽에서 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로 매봉산까지 이어지는데, '주련골'이라고도 한다. 치악산의 줄기가 주렘처럼 되어 있다고 하여 '주련골', '주렘골', '주령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주포천

남대봉 상원골에서 시작하여 성남리를 거쳐 신림리에서 운계천과 합류하는 천

(川)을 말한다.

### **촛대봉**

회골에 있는 산봉우리로서, 모양이 촛대같이 생겨서 '촛대봉'이라고 한다.

### **칠성배기**

전불 안에 있는 터로서, 옛날에 칠성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빌고 갔다고 하여 '칠성배기'라고 한다.

### **허궁다리**

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여기를 지나면 금대리 일론이 나온다. 옛날에 큰 산사태가 나서 돌들이 굴러 떨어지다가 산중턱에 쌓여 밑이 뚫린 다리모양을 하고 있어 허공에 다리가 만들어 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회골**

옛날에 절골의 석남사 다음으로 이곳에 절을 지었는데 이 절에서 상원사의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 옛날 절터 자리는 지금의 복민연수원 자리이다.

## 6. 강림면 강림리

### 1) 위 치

동쪽으로 영월군 수주면, 서쪽으로 원주시 소초면, 남쪽으로는 원주시 신림면, 북쪽으로는 안흥면과 각각 접해있다.

### 2) 유 래

이곳에 각림사(覺林寺)가 있어서 각림리로 불리다가 지금의 강림리가 되었다.

### 3) 연 혁

본래 원주군 수주면의 지역이었으며, 고종 32년(1895)에 영월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이천, 노평, 노고소, 노들, 보건네, 선개, 창말, 수레너미를 병합하여 강림리라 하였다.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주면에서 횡성군 안흥면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안흥면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함에 따라 강림면에 편입되었다.

### 4) 주요지명

#### 마치골

보건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이 골에서 배향산을 향해서 배향을 함으로써 자신이 일을 마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말치골'이라고도 한다.

#### 배향산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자 이 산을 향해 배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사리재

강림4리 수레너미에서 강림3리 송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종이 수리재와 이 고개를 넘어서 태종대로 갔다고 한다.

## 7. 강림면 부곡리

### 1) 유래 및 연혁

본래 원주군 수주면의 지역으로서, 그릇 가마가 있었으므로 가마골, 가메골, 또는 부곡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영월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정, 무례, 사성골, 부석골, 갈골, 고든골, 신박골, 가래골, 변아, 원통, 다리골, 횡지암을 병합하여 부곡리라 하였다.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횡성군 안흥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흥면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함에 따라 강림면으로 편입되었다.

### 2) 주요지명

#### 가래골

부곡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추동이라고도 한다.

#### 가마골

부곡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마을에 가마소가 있어서 라고도 한다.

#### 갈골

부곡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갈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산

갈골에 있는 산으로, 산 형상이 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말뚝봉

갈골에 있는 산으로, 옆의 마산을 이 산에 묶어 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횡지암(橫指岩)

가래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바위로, 태종이 그의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이곳에 왔으나, 원천석이 피하여 만나지 못하고는 그냥 돌아갔다. 그 후 운곡이 이 바위에 앉아서 제자인 태종을 “빋 가르쳤다”고 한탄하였다고 해서 ‘횡지암’이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왔을 때, 노고소에서 만난 노파가 원천석이 간 방향을 “빋 가리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나옹소

무례에 있는 소(沼)를 가리킨다. 전설에 의하면, 상원사 자리가 원래 늪지라 절을 지을 수 없자, 나옹대사가 이곳에 와서 지팡이를 땅에 꽂자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늪의 물이 이곳으로 빠져나옴에 따라 상원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물이 흙탕물로 변해서 나오는데, 6·25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송어양식장이 있다.

### 다리골

고든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며, 예전에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골이 길어 가다보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 이야기가 있다.

### 부석골

무례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 안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약물소

약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송어양어장으로 변했다.

## 부 록

### 치악산 문화재 현황(2011. 4. 현재)

#### 1. 치악산 문화재 현황(건)

계	지정문화재					계	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유형	무형
	사적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10	1	1	4	1	3	10	6	4

#### 2. 문화재 세부현황

##### 1) 지정문화재

구 분	지정번호	지정일	명 칭
사적	제447호	'03.06.02	영원산성
천연기념물	제93호	'62.12.03	원성성남리성황림
지방 유형문화재	제25호	'71.12.16	상원사지석탑및광배
	제103호	'85.09.13	보문사 청석탑
	제117호	'98.09.05	홍양리 마애불좌상
	제145호	'04.01.17	원주구룡사보광루
지방기념물	제30호	'79.05.30	황장금표
문화재자료	제16호	'84.06.02	태종대
	제18호	'84.06.02	상원사 대웅전
	제19호	'84.06.02	입석사 석탑

##### 2) 비지정문화재

구 분	명 칭
유형	학곡리황장외금표
	구룡사대웅전
	구룡사부도전
	금대산성지 금두산성지 변암
무형	치악산전설
	구룡사전설
	용마암전설
	강원감영제